

# 모든 학자들이 외면한 '조형사상의 열쇠' 찾기

##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당초문-영기문 ㉔



**'당초문'이란 이름의 허와 실**  
조형미술에는 종교사상(宗敎思想)이나 철학사상(哲學思想)보다 더 심오한 사상이 깃들어 있다. 조형언어를 읽지 못하니 문자 언어로 된 문헌들이나 경전들을 읽지 못하는 것과 같다. 조형언어로 되어 있는 조형미술은 문자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까지 표현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므로 조형사상(造形思想)이라는 용어를 만들지 않을 수 없다. 조형미술의 표현원리와 조형사상을 처음으로 추구하여 정립하였으므로 그 보편적 이론을 바탕으로 연재를 쓰고 있다.

우리는 단지 '당초문'이란 용어만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조형미술에 단순한 '당초문'은 없다. 앞에 반드시 '인동', '연', '모란', '국화' '아칸서스 잎' 등의 구체적인 주된 꽃이나 잎 등의 명칭이 붙게 마련이다. 그런데 용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현실에서 보는 녀성들의 이름이요, 인동, 연꽃, 모란, 국화 등 현실에서 보는 꽃들의 이름들이다. 그 두 가지가 결합하여, '인동당초문' '모란당초문' '연당초문' 등으로 불려져 널리 쓰인다. 그런데 바로 현실에서 보는 형태로 용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오류와 대혼란이 생긴 것이다.

<당초문(唐草文)>에 관한 연재를 시작하려고 하니 가슴이 두근거린다. 아무도 의심하고 있지 않은 당초문. 이 용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중국의 '당(唐)나라 풀'이다. 말이 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그 용어를 보고 웃는다. 일본은 삼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건 한국이건 육지에서 온 문물

에는 당(唐, 일본 말로 '카라')이란 말을 용어의 접두어로 간혹 써왔다. 그러면 '당나라 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일본의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카라쿠사문'. 그이 국적인 어감을 좋아하는가 보다. 일본학자는 '식물의 덩굴무늬'를 平安(헤이안)시대부터 당초라 불려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없다.

당초(唐草)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전거는, 서기 1001년쯤 헤이안 시대의 궁녀? 少納言(세이슈우나곤)의 수필집인 『枕草子』(마쿠라노소우시:베갯머리의 서책)에 다음과 같은 간단한 말이 나온다. 「蔞? (마키에)는 唐草. 蔞?는 칠공에 기법의 하나로 금·은 가루를 뿌려서 다듬는 일본 특유의 미술 공예품, 또는 그 기법을 말한다. 그리고 일본 헤이안 시대(794년-1185년) 후기에 완성된 작자미상의 설화집인 『今昔物語集』(곤자꾸모노가다리슈) 즉 「옛날과 지금의 이야기」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唐草의 蔞?의 唐櫛?」.

이들 고전에 근거하여 일본인은 '唐草文'이란 용어를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 미술사학자들은 아무 감동이나 의문 없이 식민지시대에 일본인으로 부터 배우거나, 해방 후 일본에 유학하여 그대로 당초문을 배워 와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모든 국민들은 당초문이라 부르고 있다. 그런 간단한 언급을 취하여 당초문이라 해서 지금은 세계 공통적인 용어가 되었으니 당초문의 실체는 점점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조형의 본질 찾을 수 없는 이름



그림 ①

중국은 만초문(蔓草文)이라 부르는데 용어는 당초문과 다르지만, 녀성무늬를 가리키는 것은 같다. 서양에서도 같은 내용의 용어를 쓰되 정해진 용어가 없는 듯하다. 대개 'plant like decoration' 혹은 'foliage scroll'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이다. 불어로는 'rincaux' 독일어로는 'laubwerk'라 한다. 사전을 찾아보면 모두 '당초문'이다. 우리나라 외국어 사전은 일본에서 만든 외국어 사전을 모두 번역한 것이어서 우리나라 모든 사전류들을 찾아보면 모두 '당초문'이다.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아직도 일본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저 장식일 뿐이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 일본학자들은 이슬람 미술, 그리고 유럽의 그리스, 로마, 기독교 미술 등에 나타난 서양의 조형적인 녀성무늬들도 모두 당초문이라 부를 뿐만 아니라 인도, 동남아시아 등의 녀성무늬들도 모두 당초문이라 부르고 있어서 동서고금(東西古今) 세계의 모든 녀성무늬는 당초문이 되어버렸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바꾸어 '녀성무늬' 혹은 '녀성문'이라 하지만 틀린 용어임은 마찬가지이다. 그 용어에 따라 조형의 해석도 단지 '당초문' 혹은 '녀성무늬'라는 장식일 뿐이다.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뜻을 읽어보면,

데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당초문이란 것은 용과 보주와 만병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런데 동서양 학자들이 용, 보주, 만병을 모르니 당초문이란 용어가 왜 틀리는지 더욱 알 수 없다. 서양학자들은 더욱 불리하여 훨씬 낮은 수준이다. 당초문이 차지하는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크고 중요하므로 인류의 미술사학 연구는 지금부터라고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자, 이제부터 세계의 모든 학자와 총칼 없는 침묵의 전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한다. 물론 그들은 침묵하거나 올바른 정답을 제시하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들을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당초문의 정체를 충실하게 증명해낼 뿐이다. 그렇게 해서 서양의 미술을 풀어내면 오랜 세월 끝에 그들이 나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내대로 당초문의 정체를 알아냈으니 풀어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풀어낼 것이다.

### 조형화된 녀성은 실물과 무관

식물에는 녀성식물이 따로 있다. 같은 말로 녀성식물이라고도 하는데, 줄기가 길쭉하여 곧게 서지 못하고 다른 물건을 감거나 거기에 붙어서 자라는, 즉 접의 담나비, 배꽃 등 수직경사진 곳에서 길게 줄기를 뻗어 자라는 식물들이다. 녀성식물의 종류에는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나팔꽃, 수박, 참외, 포도, 수세미, 오이, 담쟁이, 덩굴, 능소화, 다래덩굴, 줄장미(뽕장미), 등나무, 호박, 머루, 참, 오미자, 갈퀴덩굴, 꼭두서니, 매꽃, 더덕 등과 같은 식물들이 있으며, 포도과에 속하는 식물들도 거의 다 녀성식물이다. 이들 녀성들은 잡풀에 속하여 예부터 생명수나 우주목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미미한 잡풀이므로 인류의 조형미술의

술의 주류를 이룰 수 없는 것은 뻔하다.

그러면 기원 전 고대의 조형미술에 나타나기 시작한 녀성식물은 이러한 현실의 녀성식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관계가 없다. 조형미술에 나타나는 녀성모양식물은 현실에서 보는 녀성식물과 아무 관계가 없다. 심지어 가장 비슷한 포도 녀성마저 포도 녀성이 아니다.

인동당초문, 연화당초문, 모란당초문, 국화당초문, 포도당초문 등은 과연 맞는 용어인가? 인동, 연꽃, 모란, 국화 등은 녀성식물이 아닌데 주어진 공간에 맞추어 왜 한 줄기로 혹은 사방으로 여러 갈래로 전개하여 가는 것일까? 문명의 발생부터 왜 그런 조형을 만들었을까? 그런 조형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그런 조형의 전개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런 원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인류가 역사를 이루어 오는 동안 어느 미술사학자도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없다. 오히려 모른다고는 말하지 않고 억지로 답을 만들어 내려는 데서 동서양 미술사는 더욱 더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그런데 당초문이 아니라면 그 수많은 당초문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무엇인지 모르면 단지 '당초문'이라한다. 그 예가 고려청자 알막새 무늬이다.(사진 1) 그 모든 당초문은 '영기문(靈氣文)'이라는 방대한 조형의 카테고리에 포함될 뿐인데 이 낯선 '영기문'이란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나가 보기로 한다. '무엇인지 모를 당초문'에 세계가 놀랄 비밀이 숨겨져 있다.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무늬에 세계미술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조형에 열쇠가 숨어있는데 아무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일할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 藥 이 되는 사찰음식

## 나물 비빔밥으로 여름철 피로 풀어보자

### 연재를 시작하면서

'자연'과 '시간', '사람'이라는 삼박자의 절묘한 조화로 만들어져 온 우리 사찰음식은 몸과 마음을 함께 보듬어주는 치유의 음식[藥]이자 수행을 돕는 수행식[禪]이라고 할 수 있다. 식재료 본연의 맛을 가리는 인공조미료 대신 시간의 흐름을 간직한 전통 장류와 자연발효 효소로 맛을 낸 사찰음식은 몸의 기운을 돋워 마음까지 다스려주니 약식(藥食)이자 선식(禪食)이다. 사찰음식에 담긴 '선식일여(禪食一如)'의 가르침은 여법하게 조리된 음식을 고르게 섭취함으로써

올바른 수행을 돕고, 지혜를 수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됨을 뜻한다. 부처님께서는 때 아닌 때에 먹지 말고 음식의 맛을 탐하지 말라고 일러주셨다. 식재료가 오기까지 자연에 감사하고 농사를 지은 농부에 감사하며 진언 외우듯 정성을 다해 조리하는 사찰음식. 여기에는 정갈한 에너지와 수행정신이 담겨 있다. 귀한 지면을 주신 '현대불교'에 감사하며, 산사의 향기가 담긴 사찰음식이 독자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 생된장 효소 소스의 나물 비빔밥

#### △재료(4인 기준)

나물 비빔밥 : 뽕쌀 2컵, 조 1/4컵, 다시마 1조각, 각종 볶나물(마리나, 돌나물, 숙갓, 당귀, 상추 등) 200g

#### △생된장 효소 소스 : 된장 4큰술, 매실액 2큰술, 산야초 효소 3큰술, 들기름 4큰술, 다진 청양고추 2큰술, 다진 홍고추 2큰술, 통깨 2큰술

#### △만드는 법

① 뽕쌀과 조는 깨끗이 씻어 30분 정도 불린 뒤 다시마물을 넣고 고슬고슬하게 밥



을 짓는다.

② 볶나물은 깨끗이 씻은 후 얇은 식초물에 씻어 내거나 노그릇에 물을 담아 하루 정도 둔 후 10분 정도 두었다가 건져낸다. (노그릇을 사용할 경우 생채소의 살균작용에 도움이 된다.)

③ 재래식 된장에 분량의 재료를 넣고 골고루 섞는다.

④ 그릇에 밥과 채소를 담아 생된장 효소 소스를 곁들여 낸다.

### 효소 소스의 효과와 생된장의 조화

'효소'는 우리 몸속에서 인체 활동을 돕는 다양한 촉매제로 작용한다. 노화와 피로의 주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거나, 세포재생 활동을 돕거나, 지혈작용을 하는 등 그 역할은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다.

우리 주위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효소가 매실액이다. 매실을 설탕에 넣고 절여 숙성, 발효시킴으로써 손쉽게 액상효소를 만들 수 있다.

매실에 넣은 설탕은 발효과정에서 효소 작용에 의해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체내에서 또 다른 효소들과 결합해 인체가 필요로 하는 약리작용을 한다. '산야초 효소' 역시 체내에서 다양한 약리작용

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산야초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시판 중인 산야초 효소를 구매 음식에 활용해보자.

오늘 소개하는 생된장 소스는 우리의 전통 발효음식인 된장에 산야초 효소와 매실액을 더해 된장 특유의 흙내가 없어 상큼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으로, 강된장이나 짬장과는 또 다른 맛이다.

효소 자체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으로 소스를 만들어 음식에 곁들여 먹으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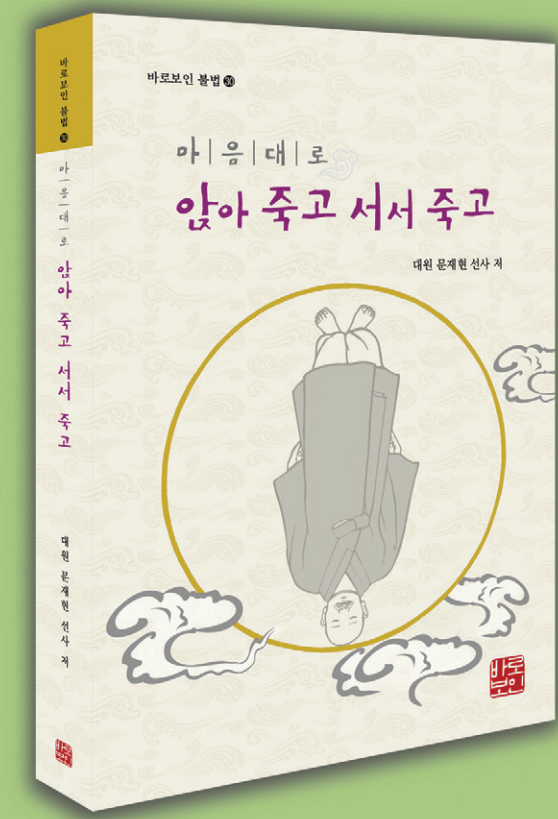
### ▲김은정 소장은...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천태종 출세 정량사·인체 활동사 월태사찰음식연구보존회 지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 오직, 불법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

##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불조정맥 제77조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저서인 이 책은 생사를 자재한 분들의 앉아서 열반하고 서서 열반한 내력은 물론 그분들의 생애와 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수록해놓았다.

부처님께서는 불가의 이러한 열반과 신통을 명예욕이라고 하여 밖으로 들추지 말라고 하셨다. (중략) 우리가 모두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기를 자재했던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열반상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용기와 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가 될 것이다.

일러두기 중에서...

☎ 031-534-3373 / 010-9043-1016



##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저서 - 30종 / 60권



전질 구입시 20% 할인입니다.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세월을 복채로 세상을 복심아 영원한현실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선문영송 전30권 중 22권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찻는 희다 바로보인 중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운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바로보인 법성계 / 달다 / 기우목동가 / 초발심자경문 / 방거사유록 / 실증실 / 하택신회사현종기 / 불조정맥(한영종 3개국어) 바른 불자가 됩시다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 108진행회(한영종 3개국어) /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마음대로 앉아죽고 서서죽고